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13)

어제와 오늘을 살며

중앙대학교 교수 김영찬*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라는 본 기획 연재에 두고 한다는 것이 매우 망설여집니다. 미흡하지만 몇자 기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회에 제가 간여한 것은 학회 초부터였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깊이 참여한 것은 1986년 11월부터로서 서울대학교에 계신 김종상 교수님을 회장님으로 모시며 총무 이사직을 맡고서 부터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임회장님들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구의동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마포에 오피스텔 두 개를 전임 김길창 회장님께서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회장단부터 가능한 빨리 새 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오피스텔 공간이 사무실로는 적합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의 머리재빌딩으로 정하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되기까지는 당시의 김종상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 학회 부회장직과 회장직을 거치면서 전임 회장님들과 여러 회원님들의 덕분에 큰 불편은 못 느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1996년 제가 정보과학회 제 14대회장으로 취임한 당시를 회상하면 취임 직 전상태에서 매일 한권으로 발행되던 논문지가 급기야 A, B, C 세 권으로 증간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학회사무실 공간도 현재의 머리재빌딩 4층 외에 별도로 3층에 약 45평 규모를 힘들게 추가 매입한 직전상태였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임기내에서 별도의 큰 사업계획을 세우기

에 앞서 이를 어떻게 집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 회원님들과 당시의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훌륭히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학회장 임기동안의 사업계획 및 집행사항들을 회고해 본다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가 학회업무의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환경의 기반 구축이었습니다. 즉 학회가 설립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정보화의 선도역할을 해야할 우리학회가 내용면에서 300여편의 논문 게재와 춘 추계로 열리는 학술발표회 및 14개에 달하는 각 분과연구회별 학술활동 등을 고려해볼 때 극히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등록회원으로 볼 때 9,000여명에 이르는 거대한 단체입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간의 정보교환과 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전산화가 부끄러울 정도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담당 부회장이신 당시 KORDIC의 김진형 소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드웨어부분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지원 받게 되었으며 여기에 중앙대학교의 권영빈 교수와 건국대학교의 한기준 교수를 중심으로한 대학원생들의 노력으로 현재와 같은 학회의 정보화기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우리 학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더욱 높이기 위한 위상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KAIST에 계시는 조정완 전임 회장님께서 주관하여 이미 1996년도 COMPSAC 회의를 우리 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결과

*중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14대 회장

'96년 8월에 쉐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성대하게 거행될 수 있었으며 또 다음해의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스템 공학연구소가 주선 하고 학회에서는 병렬처리 시스템연구회를 중심으로 하여 김성천 교수를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이 수고로 HPC Asia '97 학술대회라고 하는 대규모의 국제학술회의를 국내에 유치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앞으로 학술 발표는 물론 사무국간의 업무교류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학회차원에서 국제 교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먼저 우리와 거리면에서나 문화면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교류를 시도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분야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일본정보처리학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교신 끝에 우리 학회와 일본정보처리학회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모임을 10월 23일에 양 학회장과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Palace Hotel에 모여 조인했습니다.

세번째로는 학회 회원의 저변확대 방안이었습니다. 이 일만은 저희 임원진들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의 문제점이라면 평의원을 비롯하여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분들을 보면 지역적으로나 기관별로 너무 치우쳐 있으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의 차기 회장단인 현집행부부터는 정관이 일부 변경되면서 많은 평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역별, 기관별, 학회의 공헌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쉬운 면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에 비한다면 폭넓은 수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랜 세월에 걸친 학회의 주관 부서 이관 문제였습니다. 우리학회가 창립되면서 부터 과학기술처가 우리의 주관 부서였습니다. 그러다가 행정부서의 조직변경으로 저희들의 정보관련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됐습니다만 우리 학회는 그냥 과학기술처 소관으로 남아있게 되다보니 회원들의 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서 소관 부서의 이전을 위하여 전임회장님을 비롯하여 사무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관련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많은 오해도 있었지만 1996년 10월 19일 드디어 정식으로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글을 쓰다보니 과거에 과몰혀 회고만 하는 듯 하므로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IMF시대에 대비한 우리 정보과학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고 현실에 맞도록 적절히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금년 2월 25일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작은 전자정보 대국 건설이라는 용어와 함께 IMF한파였습니다. 물론 학회 입장에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학회에 수입이되는 광고비라던가 특별회비 및 기타보조비 등 입니다만 이 항목은 전에도 많은 회원사들에게 빚긴 감을 갖고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적으로 총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신문지상이나 방송 매체들을보면 IMF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이나 정보통신정책 등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매우 심도 있게 검토되고 발표회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정작 그 정책 기술을 집행 해야되는 관련 기술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너무 학문만을 고집해서인지 아니면 무관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금년이 우리학회가 창립된지 만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사람에 비유한다면 가장 패기 있고 활달한 청장년에 속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앞으로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 훌륭한 학회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